

순천시 신청사 건립 속도 낸다

시민 참여 디자인단 출범
전문가·시민·공무원 등 50명 구성
100일간 비전·콘셉트 등 수립
7월부터 설계 공모지침 마련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이 시민 참여 디자인단의 출범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순천시는 최근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순천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디자인단' 출범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 방향을 시민과 함께 구상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참가자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가 16명, 시민 23명, 공무원 11명 등 총 50명으로 시민참여 디자인단을 구성했다.

디자인단은 6월 말까지 100일간 신청사 건립 비전과 콘셉트, 규모와 배치, 도입시설, 기존 청사 활용방안 등 신청사 건립 전반에 대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립 방향을 구상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14일 열린 시민 참여 디자인단 출범식은 청사 건립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순천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디자인단'이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상호 소통의 시간, 위촉장 전달, 헌반식,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공간 디자인 전문가인 와우디자인연구소 최송일 대표의 총괄 진행 하에 가진 소통의 시간에는 참가자들을 6개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의 팀장 및 디자인단을 대표할 단장 선출도 함께 진행됐다.

단장에는 청암대학교 정경석 교수가 선출됐으며, 위촉장 전달 후 디자인단 사무

실 헌반식을 가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참여 디자인단을 통해 수립되고 논의된 시민 의견을 건립 방향 설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한 명 한 명이 28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디자인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참여 디자인단은 6월 말까지

지속적인 워크숍과 광장 토론 등 다양한 토론회를 거쳐 신청사 건립 비전과 콘셉트, 규모와 배치, 시민 공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순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인 설계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향매실마을.

23일 순천향매실마을 동네방네 매화축제

순천시는 제11회 순천향매실마을 동네방네 매화축제가 23일 오전 10시 월등면 계월리 향매실마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향매실마을은 92ha 면적에 매화꽃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개막식과 함께 매화꽃길 스탬프ラリー,

SNS 홍보인증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열린다. 매실 음식전시회와 매실 인절미 시식 등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순천 향매실마을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봄꽃나들이가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에 선정됐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순천시, 2020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확정

평생교육도시 기반 구축 기여

순천시가 2020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돼 평생교육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선정 공모에 참여해 유치 경쟁자인 인천 연수구와 충남 당진시를 제치고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개최지 선정에는 순천시와 전남도교육청이 2019년 9월 개관예정인 공동 투자한 대규모 컨벤션 시설과 전시, 공연 및 회의 공간을 갖춘 '에코에듀체험센터'와 2020년 개관예정인 '순천만잡월

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내 삶의 미래, 순천에서 찾다'를 주제로 에코에듀체험센터를 주무대로 전시장, 홍보관, 체험행사가 열린다.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과 국제습지센터에서는 기념행사와 컨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시의 특색있는 정원·생태·미래산업 문화를 활용한 박람회 성공사례를 전국에 알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에 걸맞은 평생교육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새 단장 '문화의 거리 옐로우마켓' 30일 개장

포토존·피크닉 캠핑 등 다채
청수골 팡팡벚꽃축제도 열려

순천시가 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옐로우마켓이 이달 말 개장한다.

기획에서 운영까지 시민들이 직접 준비해온 '문화의거리 옐로우마켓'은 30일 문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리며 가족, 연인과 함께 밤에 거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볼거

리와 즐길거리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마켓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포토존, 봄에 피어나는 감성 가득한 프리 버스킹, 완연한 봄을 즐길 수 있는 정원 피크닉 캠핑, 금꽃길의 문화공간과 도시정원 이야기를 즐기는 선착순 투어, 금꽃길 사진관 전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따뜻하고 달달한 봄 감성을 만족시킬 셀러 50여 팀이 참가한다.

또 당일 공마당길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3회 청수골 팡팡벚꽃축제'가 함께 열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옐로우마켓은 주민 주도형 문화산업 육성의 동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례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마켓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옐로우마켓'이 진행되는 30일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문화의거리 내 차량 진출입 통제되고 주차도 금지된다.

문의 사항은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 추진단(061-749-3576-7)으로 하면 된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천만그루 나무심기 함께 해요...시민운동본부 발대



지난 18일 순천시 풍덕동 동천변 그린웨이(한신아파트 옆)에서 지구지킴이 어린이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코레일 업무협약 철도관광 활성화 '맞손'

순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코레일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조형의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코레일은 올해 순천으로 떠나는 학생단체 교육열차 'E-트레인'을 4~10월까지 14회 운행하게 된다.

순천시는 철도이용 관광객에게 숙박비와 연계서비스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



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이는 관광객

유치 증대는 물론 순천시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다 타면 출발 ❌
다 매면 출발 Ⓞ

국민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확대/시행됩니다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9월 28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손해보험협회